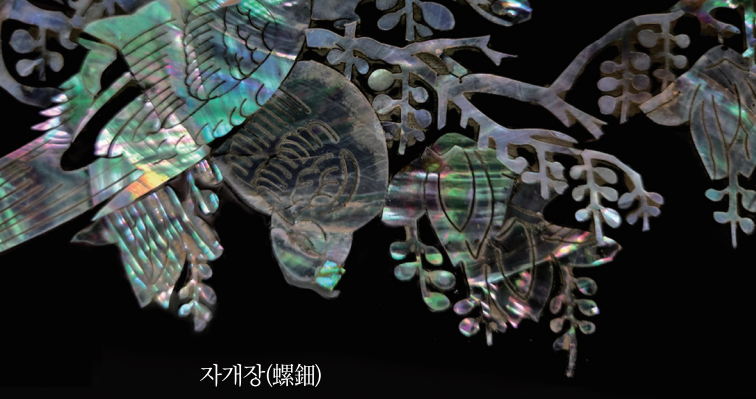


자개장(螺鈿)

나무로 짠 가구나 기물 위에 전복이나 조개껍질을
갈아 문양을오려 붙이고 옻칠해서 완성하는
한국전통공예기법이다.
나무로 기본 틀인 백골(白骨)을 짜고 그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거나 틈새를 메워 고른 뒤 자개를 올린다.
자개 작업에는 자개를 실처럼 잘게 자른 상사(詳絲)로
기하학적 문양을 만드는 끊음질 기법과, 얇은 판 모양의
자개로 곡선 무늬를 표현하는 줄음질 기법이 있다.
자개는 남해안과 제주도 근해에서 나는 것이 색이 곱고 질이 좋다.
(1966년 6월 29일 국가문화유산지정)

-발췌:2024,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발간 [장인의 손길, 전통의 숨결]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아람채리빙

어린 시절, 후암동 큰이모 댁에서 마주하던 은빛 자개장의 반짝임은
흰 모시적삼을 입고 앉아 계시던 이모의 모습과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셋방살이하던 우리 집과는 다른 공기의 결, 그 미묘한 차이를 어린 마음에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엄마가 "집 한 채 값보다 비싸다"고 말하던 그 자개장은
부러움과 동경, 그리고 한 시대의 풍경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격변하여, 자개장은 더 이상 안방의 주인으로 기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골목길에서 대형폐기물 딱지를 붙인 채 버려진 자개장을 마주했을 때,
마치 이모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가듯
한 시대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듯한 쓸쓸함이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버려진 자개장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도 목적도 없이,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느새 백 채 가까운 자개장이 제 창고에 모였고,
그 영롱한 조각들을 바라보며 저는 디자이너로서 오랜 시간 고민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오래된 아름다움이 다시 빛날 수는 없을까.'
'무겁고 장중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두고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는 없을까.'
'한 시대를 지켜온 이 물건들이, 또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자개장의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그 안에 담긴 장인의 숨결과 주인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지나온 시간,
그 위에 쌓인 먼지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은은한 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 오래된 가구들이 단순한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품어온 '기억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평생 공간을 다루는 디자이너로 살아온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오래된 빛을 다시 세상에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기억 너머에 잠들어 있던 자개장을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 주신다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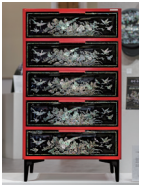
miiseum
Design&Creation
Design by Miiseum D&C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한결'은 한국의 전통적 감성과 현대적 미니멀리즘을
가정용 콘솔에 담았습니다
절제된 형태위에 **자개(螺鈿)**를 섬세하게 더해, 공간에
아름다운 빛을 자아냅니다.
'한결'이라는 이름처럼 한결같이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함께
한국 전통의 고유한 결을 현대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한결;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
공간의 분위기를 활기있게 만드는 동시에 품격의 결을
더하는 하나의 오부제 입니다.





韓결 #1

규격 : 500 x 590 x 1030
소재 : 목재(MDF)위 친환경페인트, 자개, 스틸 위 소부도장
© 2024년 12월 서울 봉천동의 최여사**님의 자개장을 업사이클링 하였습니다.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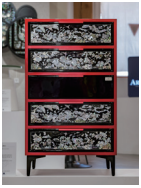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한결'은 한국의 전통적 감성과 현대적 미니멀리즘을
가정용 콘솔에 담았습니다
절제된 형태위에 **자개(螺鈿)**를 섬세하게 더해, 공간에
아름다운 빛을 자아냅니다.
'한결'이라는 이름처럼 한결같이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함께
한국 전통의 고유한 결을 현대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한결;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
공간의 분위기를 활기있게 만드는 동시에 품격의 결을
더하는 하나의 오부제 입니다.





韓결 #2

규격 : 500 x 590 x 1030
소재 : 목재(MDF)위 친환경페인트, 자개, 스틸 위 소부도장
ⓒ 2023년 8월 경기도 분당의 김**님의 자개장을 업사이클링 하였습니다.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오중주'는 한국 전통 색채의 깊은 의미를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한 컬렉션입니다.
오방색은 단순한 색의 조합이 아니라,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색입니다.
동서남북 중앙을 나타내는 다섯가지 색은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뜻하며, 삶이 평온하고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공간에 균형, 안정, 생기를 더하는 디자인을 지향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 오브제를 넘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조화로움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작품입니다.
전통의 의미를 잇되, 현대의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새로운 한국적 마감을 제안합니다.





五重奏 오중주

규격 : 400 x 600 x 350
소재 : 목재(MDF)위 친환경페인트, 자개, 스테인리스 스틸
ⓒ 2025년 9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김**여사님의 자개장을 업사이클링 하였습니다.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이 테이블은 한국 전통공예의 정수인 자개를 현대적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자개가 가진 자연스러운 광채와 깊이있는 색감은
공간에은은한 포인트를 더하며,
빛의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표면은 거실에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미니멀한 형태와 자개의 화려함이 균형을 이루며,
모던한 인테리어에 접목될 수 있는 컬러를 사용하여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있는 오브제로
자리 잡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작품'으로서 공간의
중심이 됩니다.





Lumi Shell #2

규격 : #3 400 x 1100
소재 : 목재(MDF)위 친환경페인트, 자개(상감기법), 스틸위 소부장
ⓒ 2024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문**여사님의 자개장을 업사이클링 하였습니다.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이 테이블은 한국 전통공예의 정수인 자개를 현대적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자개가 가진 자연스러운 광채와 깊이있는 색감은
공간에은은한 포인트를 더하며,
빛의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표면은 거실에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미니멀한 형태와 자개의 화려함이 균형을 이루며,
모던한 인테리어에 접목될 수 있는 컬러를 사용하여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있는 오브제로
자리 잡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작품'으로서 공간의
중심이 됩니다.





Lumi Shell #1

규격 : A 700 x 500 x 350 / B 400 x 550
소재 : 강화 PVC, 목재(MDF)위 친환경페인트, 자개(상감기법)
ⓒ 2024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문**여사님의 자개장을 업사이클링 하였습니다.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6·70년대, 자개장은 우리 어머니들의 가장 큰 로망이었습니다.
집 안에 육중한 자개장이 들어오던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기뻐하던, 따뜻하고 소박한 잔치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 반짝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던 어머니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그 자개장도, 그 앞에서 환하게 웃던 어머니도 이제는 기억의
뒤안길로 조용히 물러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 사라져가는 풍경과 마음의 온도를 다시 불러오는
시도입니다.
자개의 은은한 빛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처럼 깊습니다.

이 작품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개장에 대한 그리움을 오늘의 감성으로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러나 결코 잊히지 않는 마음.
아람채의 제품은 그런 그리운 추억을 담아 우리들 모두의
어머니께 바치는 조용한 헌사입니다.





폭싹속았수다_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규격 : 3000 x 1000 x 300
소재 : 목재(MDF)위 친환경페인트, 자개, 스틸 위 소부도장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



ARAM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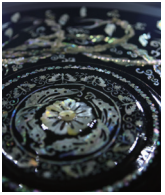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6·70년대, 자개장은 우리 어머니들의 가장 큰 로망이었습니다.
집 안에 육중한 자개장이 들어오던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기뻐하던, 따뜻하고 소박한 잔치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 반짝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던 어머니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그 자개장도, 그 앞에서 환하게 웃던 어머니도 이제는 기억의
뒤안길로 조용히 물러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 사라져가는 풍경과 마음의 온도를 다시 불러오는
시도입니다.
자개의 은은한 빛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처럼 깊습니다.

이 작품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개장에 대한 그리움을 오늘의 감성으로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러나 결코 잊히지 않는 마음.
아람채의 제품은 그런 그리운 추억을 담아 우리들 모두의
어머니께 바치는 조용한 헌사입니다.





폭싹속았수다#2_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규격 : 1900 x 1000 x 300
소재 : 목재(MDF)위 친환경페인트, 자개, 스틸 위 소부도장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한국 전통의 창호 패턴을 기반으로, 그 구조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직선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고유의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미니멀하고 세련된 형태로 다듬어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장인의 손길이 깃든 **자개(螺鈿)**를 더해,
은은하게 빛나는 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조용히 변화하는 자개의 광택은 담경이
가진 '절제된 아름다움'과 깊이 있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숨을 쉬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듣고,
소리 없이 오래 머무릅니다.






淡景_담경

규격 : 800 x 1900 x 400
소재 : 원목(자작나무), 창호아크릴, 자개
2026년 2월 특허출원중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Lumi Cellar는 와인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공간 속에 '빛의 결'을 머금은 하나의 오브제로 존재합니다.
전면 패널에 적용된 자개 인레이는 한국 전통 공예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요소로, 빛이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마다 서로 다른 표정을 드러내며, 은은하게 번지는 광채는 마치 와인이 지닌 시간의 깊이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듯한 여운을 남깁니다.
Lumi Cellar는 단순한 와인랙이 아니라
빛이 머물고,
시간이 쌓이고,
취향이 드러나는 나만의 작은 셀러입니다.
와인을 꺼내는 순간조차 하나의 작은 의식처럼 느껴질 특별한 경험을 제안합니다.






Lumi Cellar #1

규격 : 500X280X950
소재 : 목재(MDF)위 친환경페인트, 자개, 스틸위 소부도장
2026년 4월 광명시 철산동의 강**여사님의 자개장을 업사이클링 하였습니다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



ARAMCHAE

Where Korean Heritage Meets Modern Living

Lumi Cellar는 와인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공간 속에 '빛의 결'을 머금은 하나의 오브제로 존재합니다.
전면 패널에 적용된 자개 인레이는 한국 전통 공예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요소로, 빛이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마다 서로 다른 표정을 드러내며, 은은하게 번지는 광채는 마치 와인이 지닌 시간의 깊이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듯한 여운을 남깁니다.
Lumi Cellar는 단순한 와인랙이 아니라
빛이 머물고,
시간이 쌓이고,
취향이 드러나는 나만의 작은 셀러입니다.
와인을 꺼내는 순간조차 하나의 작은 의식처럼 느껴질 특별한 경험을 제안합니다.





Lumi Cellar #2

규격 :450X280X1100
소재 : 목재(MDF)위 친환경페인트, 자개, 스틸위 소부도장
2026년 4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표**여사님의 자개장을 업사이클링 하였습니다

** 20~30년된 자개의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품마다 자개의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_ Designed by Miiseum D&C